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72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04. 26.(금) 14:00~15:20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갑영 위 원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 불참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배은주 위 원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정갑영 위원장 : 제37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병국 위원장께서 베니스 비엔날레 참석 및 주요 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 관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9조에 의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원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하게 됨에 따라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 및 운영계획(안) 등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고 있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 공연예술팀 방시현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 12인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9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갑영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갑영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께서는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4월 5일에 개최한 제370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이 상정되어서 6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4월 15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71차 전체회의에는 보고안건 1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의결 사항

정갑영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전차 회의의 결과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

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54호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 및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촉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개 소위원회 운영이 확정된 후에 오늘 전체회의까지 시일이 충분하지 않아서 소위원회별 운영계획이나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원회별 위원장 위촉 결과와 경영전략 소위원회 운영계획 일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안건의 핵심내용입니다.

오늘까지 3개의 소위원회가 모두 협의를 마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해 주셨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는 정갑영 위원님,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정해져서 자료에는 명시하지 못했지만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는 김진각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는 이훈경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고로 기존 윤리인권소통소위원회 명칭을 위원님들께서 중요도를 고려하셔서 “소통”을 명칭 앞에 두는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로 변경해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서승미 위원님께서 현재 활동하는 전통예술 장르를 고려하셔서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고 대신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활동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승미 위원님의 소위원회 이동 건도 함께 수정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별 주요 기능은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기능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도출해 일정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드린 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위원회가 있어서 오늘은 경영전략소위원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보고 안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는 크게 3가지로 기관 전략 수립, 문예기금 안정화 대책 마련, 사무처 직원 인권 점검 등에 다루는 소위원회입니다. 4월 24일 첫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먼저 중장기 전략의 경우에는 사무처와 소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형태로 형식적인 전략수립이 아니라 실제 예술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4월과 5월은 계획 단계를 거치고 8월까지 환경 분석, 의견 수렴 및 시사점을 도출해서 9월 또는 10월까지 전체회의 의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대외 공감대 형성과 내부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비전 책자 등 확산 방안까지 고민해서 12월까지 본 과제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예기금 안정화 대책 마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는 대안 마련 중심으로 문예기금 고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이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하고 또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이제 막 선거가 끝나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말에 문체위 구성이 확정되고 나면 국회 공론화를 포함해서 국민 여론 확산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 기사나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와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는 추후 소위원회 개최 시에 세부 일정 등을 논의해 주시면 다시 그때 의결안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참고로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 위촉이 가능합니다. 차기 소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함께 논의해 주시면 이것 역시 의결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 예. 우리가 받은 회의자료 8쪽에서 10쪽이 본 안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에 갔고요. 소통·윤리인권 소위원회에 장르 위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떨까요? 장르 위원이 꼭 필요한 파트라면 제가 옮겨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늘 참석한 대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지난 회의 때 “서승미 위원님이 왜 안 들어오셨지?”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장르 간 소통이나 지역 간 소통이 필요한데 공연장르 쪽에서는 전통예술 장르만 안 계셔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갑영 위원장 : 그러면 정리가 된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안 의결에 대해서 찬반을 밝혀 주시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기 제출된 의결안건에서 일단 소위원장님께서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소통·윤리인권 소위원회 이름도 바뀐 게 있어서 수정의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수정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3개 분과의 소위원장이 결정되어 있고요. 특히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김진각 위원께서 소위원장이고 이 분과에 속해 있던 서승미 위원께서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로 옮기신 것을 안건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갑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4건입니다.

(체육기금)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육기금) 2024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1번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시면 2023년도 사업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167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27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비율은 약 16.1%입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대비 결정금액 비율은 약 14.6%입니다.

올해 정산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고 2024년 사업운영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바뀐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고를 전체적으로 드리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특색과 우수한 콘텐츠를 담아낸 공연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원 사각지대인 원로예술인의 활동기반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개월이고 예산이 올해 민간경상보조가 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에 보시면 작년에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약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원로예술인 참여 공연에 대한 제작·행정·홍보 지원 실행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입니다. 즉 원로예술인 개인이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로예술인은 만 60세 이상이고 1963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단체 당 1개 공연만 신청이 가능하고 인력 구성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작자 중에 최소 1인 이상으로 원로예술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창작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창작자를 포함해서 출연진의 총인원에 원로예술인이 반드시 30%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분야 내에서 무용 쪽, 특히 현대무용과 발레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마쳤는데요. 일단 유연하게 2가지 장르 같은 경우 특성을 고려해서 출연진 비율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충족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획자 부분이나 스태프 부분에 대해서는 30% 이상 포함하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오로지 실연자 중심 내지는 창작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방침으로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선정단체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비록 체육기금이지만 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원로예술인을 참여시키는 게 맞다는 취지하에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제한 요건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표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선정사업이 3건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공통적이고요. 3건이 아니더라도 2024년 문예진흥기금 선정사업 중에 이 단체가 창작산실이나 창작주체에 선정되었다거나 2024년도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2년, 2023년도부터 중장기창작지원을 계속 받아오는 단체 역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신청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2024년도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이나 행사는 당연히 불가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를 보겠습니다.

최저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공연 규모나 어떤 효과, 지원결과 등을 고려해서 신청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은 이 원로예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르별로 배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르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했는데요. 전담심의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사무처 1.5배, 위원님들 1.5배로 해서 랜덤 방식으로 돌리는 적격자 지정방식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로예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어떠한 게 저희 사업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원예술까지 해서 5개 분야를 해놓았지만 신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개 장르에 각 1인에서 2인을 포함해서 최대 10인으로 구성된 통합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반드시 각 장르별 2인씩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신청결

과 그리고 통합성을 고려해서 전 장르, 공연예술을 포함할 수 있는 원로예술인들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방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원로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공연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공연작품의 예술성과 의미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든다면 작품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호평을 받았던 실연작 중에서 어떤 작품을 재공연하는 게 의미 있다거나 최근 상대적으로 활동 기회를 얻지 못한 원로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력 구조로 구성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방침으로 심의방침에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원로예술인들의 최소 구성 비율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되고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 부분은 사업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NCAS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공문을 통해서든지 정보를 얻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지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지원제는 2024년도 창작분야 공모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27.1%인데요. 27.1% 이상 지역이 들어오면 이 비율을 유지하고 27% 이하로 들어오면 그 신청비율을 가급적 유지하는 방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장르별 신청비율에 따라서 선정비율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비율 및 건수는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기준 및 가중치는 그 내용에 맞게 넣었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신청 및 접수를 16일간 할 예정이고요. 심의진행 및 전체회의 보고는 6월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결과발표를 7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붙임1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원 총괄 현황은 앞에서 보셨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지원유형을 보면 작년까지는 실연자 유형과 창작자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 유형은 안무나 연출 등이 원로면 실연자들은 굳이 원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건데 이번에 바꾼 겁니다. 작년에 27개 중에 20대 7로 들어왔습니다.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무용이 실연자 유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장르별 사업비 지원결정액 평균값은 저희가 자부담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평균적으로 3,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저희 지원결정의 평균값은 3,5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마지막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관람객은 평균적으로 498명이 관람했고 이를 유료와 무료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예술인의 평균값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 평균이 약 23.6명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대체로 보면 장르별로 30%를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8.2%인데 무용 같은 경우 21.6%로 30%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개 단체는 30%를 넘었고 1개 단체가 30%가 안되어서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창작자 유형과 실연자 유형을 합쳐서 30%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의 붙임2 자료는 선정단체의 리스트입니다.

단체명이 가, 나, 다 순으로 되어 있는 순서인데요. 괄호가 앞으로 나와서 다소 산만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체명이 가, 나, 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도 주요 사업의 개선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 사업목적에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체육기금이니까 문화취약계층지원을 사업목적에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의 목적에 애매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원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우수 콘텐츠 개발 쪽으로 명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신청 자격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재단 같은 데에서 대체로 65세로 올리는 추세인데 지역재단과의 차별점으로 원로예술인의 개인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단체 실연 중심이기 때문에 60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형평성 개선을 위해서 2024년 문예기금 선정단체는 비록 본 사업이 체육기금이지만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유형을 창작자와 실연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원로예술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체를 선정할 때 원로예술인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전반적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지원의 효과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대조건으로 기존의 고전 작품이 현대적 재해석이 된 의미 있는 작품들. 그리고 예술적 성취에 대한 심의기준 등을 신규로 도입해서 뭔가 원로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 예. 지금 발표를 들으시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의견을 주시죠.

김미라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원예술 쪽을 좀 봤는데요. 이 사업이 체육기금이지만 원로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여러모로 애를 쓰시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원예술은 사실 지원신청 건수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되게 적기도 하고 어떤 분야가 다원예술에서 원로예술인의 성격이 들어가나? 궁금해서 쪽 보다보니까 2023년도에 신청단체 리스트에 2개 팀이 있는데요. 한쪽은 ‘두루미과학예술센터’고 또 다른 팀은 ‘한우리오페라예술단’입니다. 이쪽이 다원예술 쪽 파트로 해서 선정하게 된 성격이나 배경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원예술 트랙을 열어놓으면서 들어왔을 때 5개 단체가 들어와서 2개가 되었는데요. 과연 이게 다원예술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결과 각각 장르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5건이 들어와서 다원예술이 전략적으로 네이밍을 유지하면서 신청했을 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선정률이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원예술을 제외하고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심의를 잘해 가면서 다른 분야에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페라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크린이나 장비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원예술을 아예 삭제하고 4개 분야로 나가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원예술의 변별력이 약하다. 그런데 다원예술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있어서요. 그래서 심의 때 적절하지 않다면 통합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하나 물어볼게요. 뭐든지 사업목적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원로예술인 자긍심 고취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자긍심 고취는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자긍심 고취는 아무래도 그 작품을 실연한 다음에 비평이나 관객의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기금으로 하면서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이 사업은 철저한 모니터링이 잘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봤던 부분이어서요. 올해는 공연예술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성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이 사업의 의미는 기회부여와 자긍심의 고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수월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한참 활동하는 중간 세대는 보호를 많이 받았고요. 신진예술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 활동할 기회가 적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이 디자인되어 시작됐고요. 활동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발표의 기회, 전시의 기회 등 여러 가지 공연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목적에 대한 워딩을 잘 해야 됩니다. 창작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자긍심이 고취되는 건지? 물론 받으면 자긍심이 고취되겠죠.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인지?

송시경 사무처장 : 한편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얘기는 원로 예술인들과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 하며 서로 배울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워딩을 “원로와 함께 하는” 이렇게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정숙 위원 : 저도 자긍심 고취에 기여 하는가? 이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자긍심이 사전에는 얼마였다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그렇게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심의단계에서의 측정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내지는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인주 위원 :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회의자료 13쪽에 제외대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자격인 경우 안 된다는 것이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개인은 신청자격 자체가 불가하고요. 단체로 들어왔을 때 그 단체가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장인주 위원 : 그리고 2024년 문예진흥기금 선정사업 3건 이상인 경우는 신청자 기준인 거죠?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저희 공모사업 자체가 3건 이상은 불가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장인주 위원 : 사실 무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용이 유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신청자만 바뀌어서 동일 단체가 하는 부분들은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실질적으로 동일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인주 위원 : 신청자는 다른 분이라도 성격이나 소속 단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으로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런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나오나요? 볼 수 있어요?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서승미 위원 : 그리고 저도 궁금한 점은 한국무용이 어떨 때는 전통예술 쪽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무용 쪽으로도 신청하는데 이 부분은 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 지원단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무엇이 더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의위원들은 한국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무용 쪽으로도 넣고

전통예술 쪽으로 넣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의견을 더 주시죠.

서승미 위원 : 무용 쪽의 파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헛갈려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용 쪽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송시경 사무처장 : 전통 중에서도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통예술 창작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 무용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전통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작품 지원이라도 어느 쪽에 분류되는 게 나올지는 협의 과정에서 판단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님과 말씀 나누어서 구성하고 통합심의를 하다 보면 전통 쪽이나 한국무용 쪽으로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딱 구분해서 얘기하기는 현재 아는 바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심의 진행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아까 지역문화재단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원로예술인 기준을 60세로 설정한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60세를 원로예술인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로 지역재단에서는 원로예술인의 기준을 65세로 올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65세로 해야하나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실연 중심이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60세로 결정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지금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 지금 60세도 거의 절정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원로예술인이다, 정부에서 원로예술인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약간 모순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참여율이 70% 이상은 되어야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50%도 안 되는데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 명칭을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원로예술인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원로예술인 참여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사업 명칭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50%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축이라는 게 주된 활동하는 수 개념도 중요해서요. 이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요. 원로예술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례비 부분에서 일반 실연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계속 예술위원회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붙임1 자료에서 보면 원로예술인들의 참여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단 2가지 요건을 합치는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장인주 위원 : 장르를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연령이 나왔는데요. 무용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무대에 오

른 게 정말 세계적인 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세를 원로로 하는 것도 연령층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장르를 하다 보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세인데 39세를 기준으로 두는 것처럼 지금 원로도 60세로 해야 그나마 무용 분야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참여율이 나와서 전체적인 평균을 내다보니까 60세가 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장르의 특성에 따라서 예외 규정을 두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장인주 위원 : 그런데 통합심의를 하니까 해당 장르의 심의위원들이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지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이 있겠죠.

정종열 위원 : 예를 들어서 음악은 성악이 다르고 현악이 다르고요. 작곡가는 60세가 전성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인주 위원 : 인간문화재분들은 연로하신 경우에도 무대에 오르시는데요.

정갑영 위원장 : 그러면 그냥 60세로 하시죠. 방법이 없네요.

송시경 사무처장 : 향후 김진각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정갑영 위원장 : 공모가 나갈 때 60세 이상으로 나갑니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60세로 하고 장르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잘 하고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모니터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감사합니다.

정갑영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문예진흥기금 수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한도값이 오지는 않았지만 문체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2025년도 예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점에 먼저 위원님들께 현재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한편 예산의 확보 용이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정부의 기조와 제시된 아젠다를 고려해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기재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방향은 지역소멸대응, 일자리, 역동경제 등이고 문체부도 이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고려해야 될 게 작년 말에 문체부에서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술인 지원 혁신, 국민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장관님께서 취임 6개월 인터뷰도하시고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리고 “방식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우리 기관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무처에서 방향을 설정하여 기존 중장기경영전략의 3개 경영목표별로 2025년 예산 편성 전략 방향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2번의 부처안 편성 현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처안은 총 6,26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기존 우리 기관의 사업예산 안에서 편성 가능한 예산은 3,702억 원이고 한도 외 편성한 내역은 2,562억 원으로 한도 내외를 합쳤을 때 2025년에 저희가 제출하고자 하는 6,264억 원이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3,565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한도 내의 3,702억 원에서 관광기금으로 바로 이관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고요. 이는 작년도 사업비의 87.3% 정도 수준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일괄 삭감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증감을 짜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린 삭감 기조. 그러니까 건전재정기조에 따라서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예술창작지원은 증액을 하고자 해서 전년 대비 11.3% 증액을 했고, 기타사업. 특히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삭감 폭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술위원회가 창작 영역을 집중지원한다는 기조를 고려해서 기존에 있던 향유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그만큼 남은 예산을 창작지원에 더 투입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신규 증액 사업과 주요 감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신규 증액사업은 728억 원이고 주요 감축사업 규모는 286억 원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는 방향과 맞춰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개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과 중앙의 역할 분담입니다. 장관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소액다건형 1차 지원사업들은 지역에서 하고 예술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한 거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지역의 우수한 결과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방향에서 기존에 예술위원회가 하고 있던 소액다건형 사업은 지역과의 유사중복 문제도 제기된 바가 있어서 내부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 왔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사업부터는 3가지 과정. 창작의과정, 창작산실, 창작주체로 단계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앞에 있는 창작의과정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소액다건형으로 나눠주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공연예술전문인력 사업도 타 사업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예술위원회 핵심 창작지원 사업인 장르별 창작산실과 국제교류, 청년예술가지원 사업에서도 가능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창작산실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지역 연계 사업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지원사업도 기존에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 허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심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내용들도 있어서 바꾸려고 하는 방향은 지역에서 1차 지원을 받은 청년에 대한 2차 지원 성격으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당연히 예술창작지원 사업을 하는 곳.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평탄화 할 수 있는 작업과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연계해서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3억 원을 신규 추진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액 한도 외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증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후속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문체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작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작품들이

예술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환류가 되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으려면 레퍼토리화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위원회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신작, 창작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 시각, 공연 등 전 장르에 걸쳐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레퍼토리화로 넘어가는 후속지원 사업을 만들어보고자 아래 별표로 적어 놓은 작은 글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단위 그리고 창작환경, 지역균형 등 이 3가지가 문체부에서 발표한 작년 혁신계획에 들어있던 키워드입니다. 이것들을 실현하고 받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을 말씀드린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과 통합하고, 통합하는 예산을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에 편성해서 그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현상이 체감할 수 있는 간접지원 확대는 먼저 문학주간 확대, 문학광장 확대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기존에 폐지되었지만 예술현장에서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던 것도 함께 수렴해서 그 내용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가치확산 그리고 메세나협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예산편성에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위원회에서 배출한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작 작품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허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작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공연을 보러 오는데 알려져 있지 않은 공연에 대해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믿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공신력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문체부에서 예술위원회에 요구했던 거였고 가칭 아르코셀렉션(ARKO Selection) 표기를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이 부여된 작품이라는 것도 같이 캠페인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간접지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예산 반영이든 사업방식이든 계속 반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김미라 위원 : 질문인데요. 아르코셀렉션 표기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지원사업에 다 부여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표기를 할 예정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사실 아르코셀렉션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는데 문체부에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기존에도 창작산실 작품에 대해서 다 아르코셀렉션을 붙여 왔고요. 만약 레퍼토리 지원사업이나 중장기창작지원까지 붙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직 초기단계라서 정확히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붙여주고 그냥 단순히 라벨만 붙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홍보 마케팅 등 캠페인도 같이 진행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아르코셀렉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믿고 보셔도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는 것을 부여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붙인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 중에서 어떤 기준의 우수한 사업에다가 특별히 붙인다는 자체적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코셀렉션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것은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라는 홍보도 같이 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고려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지금 세부 사업별 총 예산안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 그리고 공연예술 등 커다랗게 3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예술창작육성 쪽에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증감 속도가 비슷하게 가잖아요? 특별히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술산업금융지원용자가 뭔가요? 새로 시작된 건데요. 그 두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시각예술창작육성에서 증액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미술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언론상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지역별 공공예술 작품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한도 내로 편성하면 기존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증액 소요는 한도 외로 편성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예술산업금융지원용자 사업도 기초예술이 단순히 창작지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연결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역시도 문체부의 요구사항이지만 저희 문예진흥기금 한도 내에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역시 한도 외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저희 기금 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한도 외로 신청을 했다는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한도 외로 편성한 것은 만약 이것을 문예진흥기금에 편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예술여행은 어디로 갔어요? 예경으로 갔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신나는예술여행은 지금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관을 하지만 신나는예술여행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유사한 사업들과 통합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만든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구석구석문화배달’이라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새로운 사업명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당초 저희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일단 지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섹터별 문화소외라기 보다는 구석구석 빠짐없이 문화적으로 문화향유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전에 진행했던 청춘마이크 사업과 통합해서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승미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시각예술창작육성은 지금 김성범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많이 커진 부분.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부분은 한도 외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하고요. 올해까지 추진되었던 공공예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술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가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기재부에서 공공예술 부분의 예산은 전액. 그러니까 올해 계속 지원되던 파트까지만 지원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 부분이 사라졌는데요. 그 부분을 시각예술 장르로 일단 포함시켜서 한도 외지만 예산 요구를 일단 해본 부분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 한국문학세계화 25억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한국문학세계화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타 기관과 유사중복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노벨상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요한 문학 시

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 한국작가들에 대한 프로모션지원 그리고 해외에서 유명한 작가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레지던시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려했었는데요. 이것 역시도 한도 외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아르코가 문학창작지원을 하고 번역원이 번역출판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누수 되는 것이나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쪽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 위원장 : 메세나 지원이 75억 원인데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역시 한도 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정부 예산이 건전재정으로 삭감기조, 약 13% 정도를 삭감하는 부분이라 아예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한도 외 사업으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공공미술 쪽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도 기존에 해 왔던 공공예술 사업을 하던 것까지만 정리하고 그만하자는 쪽으로 기조가 잡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만하자’ 라고 잡힐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경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 외로 공공미술에 98억의 신규를 잡은 방향성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사실 공공예술 사업을 접게된 큰 이유는, 작년에 2024년도 예산을 짤 때도 여전히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큰 방침이었는데요. 기재부에서 가장 큰 방침이 소위 지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 중앙에서는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중앙에서는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기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공공예술 사업이 저희 세부 사업 유형에서 지역문화예술지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문화예술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이 작년에 아예 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르겠지만 작년에 이미 2년 다년간 지원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게 해 달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만 예술창작지원의 다년지원 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년지원을 하고 접겠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올해 공공미술 관련해서 최근 기사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미술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지자체 내에서 공공미술 작품을 만들어낼 때 소위 흉물스러운 작품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존 관리가 안 되는 작품들이나,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해서도 작가와 브로커, 건축주 간에 뭔가 좋지 않은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고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2페이지 표를 보시면 아까 한도 외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린 공공미술 예산이 98억 원 규모인데요. 그중에서 4억 원이 넘는 부분이 그런 건축미술작품에 대한 관리, 현황조사, 방향성 조사 등을 하는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의 공공미술 부분에 선도적인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예산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도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창작산실로 편성해서 건축 분야 지원사업도 소액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의 성격은 기부채납된 예산을 활용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성격인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입 중에 하나가 건미출연금이요 건미출연금은 출연되고 나면 문예진흥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미출연금이 처음 입법될 당시부터 입법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공공미술

쪽에 쓰고자 하고 또는 그 지역에서도 계속 전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업으로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한도 외지만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면 건미출연금 예산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공공미술사업도 건미출연금을 사용해서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미라 위원 :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 중에 예술대학 연계한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올해 예산은 42억 7,600만 원입니다.

정갑영 위원장 : 그런데 그게 정말 예비 예술인 현장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나 평가로 나온 게 있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그것은 제가 사업팀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2가지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예술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단체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보다는 일자리를 보존해 주는 사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와 다르게 예비 예술인에 대한 역량 강화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요. 2025년도에는 사업방식을 바꾸려는 방향이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중심으로만 트랙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학교 중심으로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아시는 것처럼 한예중 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42억 원이 되었던 420억 원이든 지원이 되면 전국의 예술대학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강화가 안 된다면 일종의 위무하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예술대학 역량을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줄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갈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신경 써주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전달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의견을 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경영전략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이고 네 번째 보고안건은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 임시회의 결과인데요. 우선 경영전략 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는 자료 26페이지부터 28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건은 2가지인데요. 아까 소위원장 선출은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전략에 관한 수립을 한번 해보자는 것과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대책 마련 등 2가지 안인데요. 기관 중장기전략 재수립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진단 겸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뤄보면 경영평가 항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연관성 속에서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것을 보시면 알겠지

만 워딩의 단어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상당히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사무처는 정책수립 역량이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 또 연구인력들도 있어요. 4명의 학위 소지자들도 있고 연구들도 해 왔고 작년에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역량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장기전략을 구체적으로, 이런 경영평가 항목에 관계 없이 진정으로 예술위원회가 가야할 방향과 전략이 뭐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기존에 이런 게 많습시다. 2030비전전략도 있고 문체부에서 혁신TF하죠. 문광연에서 연구하는 것도 쪽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말만 바뀌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술위의 현 위치와 운명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지어서 예술위 입장에서 보는 중장기전략은 지금 없습니다. 항상 외부에 맡겨서 해 왔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는 행사 정도의 수준에서 중장기전략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술위는 현재 시점에서 스스로 진단도 해보고 역량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술위 중심으로 중장기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장기인데 장기 계획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 상 보면 대충 4~5년 정도 중기로 생각하고 그것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전략 수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6쪽 아래에 보시는 대로 기간은 올해 9월과 10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27쪽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 또 외부의 의견을 듣고 가급적이면 내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은 필요하죠. 외부의 의견을 듣고, 특히 예술현장의 얘기를 철저히 들어보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을 얘기할 때 중심은 위원회 직원들과 연구진 중심으로 그렇게 전략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는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대책 요구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문체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쁜 가운데 기금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난 10년간 세미나를 하고 안건으로 나온 게 많습시다. 항상 연말되면 관례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안만 나온 것이죠. 지난번 회의할 때 보니까 2018년에 한번 근접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회가 그대로 끝나는 바람에 실행되지 못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체육기금도 들어가 있고 관광기금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문체부는 기금을 통합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재원으로서 역할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자율성은 상당히 상실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말할 때 일반회계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회계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자율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든 확충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가 강구해야 되고요. 강구한 결과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국회와 대면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것을 공론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 5선 의원이시니까 국회 담당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번에는 결과를 보자는 게 안건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고 요청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갑영 위원장 :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너무 앞서서 나가면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기금 통합합 문제나 재원 마련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괜히 쓸데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되 협력을 해가면서 나가자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 그러면 네 번째 보고안건입니다. 2024년 소통·윤리인권소위원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훈경 위원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저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 소위원회의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저희 소위원회로 몰려서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인권과 소통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우선하여 과업으로 가져갈 것인지? 작년과 대비해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 의견을 모았고요. 그 결과 윤리인권도 윤리인권대로 기본적인 것을 잡아가야 되지만 2024년도는 소통에 관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자고 해서 명칭을 소통·윤리인권으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것들을 되짚어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안고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했던 것들 중에 올해도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지점으로는 무대기술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방법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자. 그리고 사무처와 예술가들의 정서적인 치유나 윤리인권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되짚어 보자. 그다음에 장애예술인들과 비장애 예술가들의 접점이라든가 협업 또는 정보교류 등에 대한 것들도 리스트화 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자는 것까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하는 연속성 과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소통에 대한 부분도 크게 2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르 간, 장르내부의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간 소통으로 2가지를 잡았는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보니 자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르 간 소통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르코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사업들이 있는데 그 축제 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장르 소통이 들어가면 어떨까? 예를 들어 연극이면 대한민국연극제, 무용이면 전국무용제, 음악이면 통영이나 거제도에서 하는 음악제에 들어가서 행사의 한 부분으로 토론이나 포럼, 간담회를 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를 정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소통을 먼저 할지? 아니면 장르 간 소통을 먼저 할지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소통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의 분포, 세대별 지원현황 등 통계를 먼저 보고 어느 지역을 갈지? 전국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해서 그것까지 취합한 후에 장르 간 소통이 먼저냐? 지역 간 소통이 먼저냐를 정리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였고요. 저희가 소통의 범주를 어디까지 소통으로 둘지도 추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 외부위원들을 모시는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대략 이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부탁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는 윤리 쪽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7기 때 소통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리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더 중시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좋지만 7기 때 했던 소통의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내지는 진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술위원회는 갑자기 생긴 조직도 아니고 작은 조직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외부에는 권위가 있는, 권력이 아니고요. 권위가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권위가 있는 기관인데요. 과거 역사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위에 새롭게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정종열 위원님은 7기 때도 소통위원회에 참여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잘 모아서 그때의 장점과 무리했던 점이 있다면 잘 진단하시고 이번 소위원회가 나갈 방향을 잘 설계하셔서 8기 소위원회가 만들어지더니 이러하다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섬세하게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소위원회보다 소통 파트는 외부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잘 출발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경 위원 :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의 때 7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가 검토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저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윤리인권소통 소위원회라고 하면 밖에서 봤을 때 잘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현장과 소통한다는 의미잖아요.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의견을 드리는 등 소통을 하자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예술현장 소통윤리 위원회” 차라리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밖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인지하고 우리가 이곳에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명칭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그것은 특방이나 회의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갑영 위원장 : 지역문화재단 관련해서 어떤 얘기인가요? 워딩만 보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원기구 생태계 내 예술위의 역할과 관련해서 실무자와 소통한다고 했는데 실무자가 지역문화재단의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경 위원 :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원래 기존 지역소통을 얘기할 때는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지역소통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회의하면서 지역문화재단보다는 현장 속의 예술가들과 현장소통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문화재단과는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문화재단들을 다 같이 만나야 되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런 게 진행되기 전에 문체부와 문화재단이 만났고 문화재단끼리도 이미 여러 번 자리가 있어서 이런 자리를 반복하는 게 어찌보면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재단들과 소통했던 것들, 문체부와 문화재단이 소통한 자료들을 일단 살펴본 후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실무자와 소통하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실무자와의 소통은 제 생각에 우리 사무처가 실무자니까 사무처와 지역재단 실무자가 소통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요.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소통의 대상이 지역문화재단의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은 잘 알겠고요. 소위원회에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갑영 위원장 : 5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갑영 위원장 : 5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상 제37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종료)

